

게임 제목 : Prondel Dropout

플랫폼 : 모바일

장르 : 탄막슈팅게임

스토리 :

(메인 스토리) 주인공은 여고생인데, 등굣길에 지하철에 치여서 갑자기 죽었다가 일어난 곳은 사후세계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프론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탄막에 대해 알려주면서 어떤 문에 도착하면 다시 저쪽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귀띔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은 바로 앞길을 다 없애버리면서 문으로 달려간다...

(서브스토리?) 주인공은 여고생인데,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다가 일어난 곳은 사후세계고? 위와 동일하니 중략하고.. 그 말을 듣고 본인은 다시 살아날 의향 없다고 말하고 그냥 프론델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서브스토리?) 주인공은 여고생인데, 히키코모리라서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 들어 앉아서 게임만 하다가 사랑하던 장비가 터져서 그대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던 후유증으로 사망, 프론델에서 눈을 뜬다. 다시 저쪽세계로 넘어가면 죽기 1시간 전으로 시간이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다시 살아나기로 결심.

설정 :

프론델(사후세계) : 지옥과 천국 같은 것은 없고 말하자면 판타지 이세계 같은 곳 주민은 누구든지 탄막을 쏘는 법을 알고 있다. 탄막을 이용한 대결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마법탄막은 많이 맞아도 생명에 큰 지장은 없다. 실체가 있는 물리탄막에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프론델에는 원래 세계로 갈 수 있는 일방통행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은 프론델의 신의 허가증이 있는 사람만 지나갈 수 있고, 2명의 문지기(소라&루나)가 항상 교대로 지키고 있다.

등장인물 :

레이나(주인공) 자매신 서브주인공1 서브주인공2 서브주인공3 1스테이지 보스 2스테이지 보스 3스테이지 보스 4스테이지 보스 최종보스(문지기)

게임 조작법 :

공격은 별다른 조작 없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게임방식은 2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를 터치 하고 드래그를 통해 이동합니다.

화면 아무 곳이나 스와이프해서 이동합니다.

화면을 연속으로 2번 터치하면 폭탄이 발동됩니다.

게임 시스템 :

게임 잡몹 구간 -> 보스 -> 보스 각성 페이즈 -> 다음스테이지

* 최종보스전의 경우 3페이지로 구분합니다.

잡몹 퇴치 시 아이템이 드롭됩니다.

- 스코어링 관련 아이템
- 탄막 강화 관련 아이템
- 폭탄관련 아이템

보스퇴치 시 생명력 1up 아이템이 드롭됩니다.

플레이어의 탄막의 경우 3가지 종류의 탄막강화 아이템이 있으며, 가장 많이 획득한 강화아이템의 탄막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탄막의 종류는 확산형, 유도형, 전방집중형 입니다. 탄막은 5단계로 강화됩니다.

- 1단계 : 기본
- 2단계 : 3줄기
- 3단계 : 5줄기
- 4단계 : 서브탄막 2줄기(2번째로 많이 획득한 강화아이템의 형태)
- 5단계 : 서브탄막 4줄기

최종보스 처치 시 남은 폭탄, 생명과 클리어 시간을 합쳐서 점수가 계산됩니다.

게임 화면 :

